

성경적 차입 및 대출원리

Biblical Principles of Borrowing and Lending

박정윤

- I. 차입 증가 현상과 문제점
- II. 부채의 위험과 원인
 - 1. 부채의 위험
 - 2. 부채의 원인
- III. 성경적 차입 및 대출 원리
 - 1. 차입원리
 - 2. 대출원리
 - 3. 공통원리
- IV. 빚없는 삶과 대출자로서의 삶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biblical principles of borrowing and lending.

For this purpose, four things have been done. First, various social problems were recognized largely due to the phenomena of increase in debt financing by households, business, and the government.

Second, the dangers and causes of debt were examined.

Third, twelve biblical principles of borrowing and lending were observed and examined.

Lastly, although debt financing is not prohibited in the Bible, debt is not looked upon as normal for God's people. Therefore, Christians need to be careful when they borrow, and are encouraged to live as lenders, not as borrowers.

I. 차입 증가 현상과 문제점

1995년 한 해 동안 14,000개나 되는 중소기업들이 부도를 내고 파산되었다. 이들이 파산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부채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¹⁾ 한국은행에 의하면 1995년 총외채는 789억달러, 순외채는 182억달러였다.²⁾ 이 숫자는 1994년 연말의 총외채 568억, 순외채 103억달러보다 크게 증가한 것이다. 또한 1995년 연말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1인당 부채규모가 500만원에 가까웠다.³⁾ 이것은 1994년보다 15%가 증가한 것이다.

* 이 논문은 1993년도 영남대학교 교비연구비에 의한 것임

1) 한국경제, 1996. 3. 7.

2) 국민일보, 1996. 5. 5.

모든 경제주체가 차입의 증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래리 버켓은 미국의 이혼율이 급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가계가 지나치게 많은 부채를 진 결과라고 믿고 있다.⁴⁾ 그는 20세와 30세 사이의 연령에 속하는 이혼한 부부의 80%는 재정상의 문제가 주된 이혼사유라고 말하고 있다. 기업의 부도는 종업원들의 일자리를 잃게 만들고 기업에 대출해 준 사람들은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어느 의사는 빚을 얻어 병원을 개업했으나 영업이 예상대로 잘 되지 않아 융자금 상황에 시달리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 자살하고 말았다.⁵⁾ 혹은 많은 사람들이 빚보증으로 인하여 큰 재산을 일순간에 날려 엄청난 마음의 고통을 받기도 하였다.⁶⁾

우리 나라의 모든 경제주체의 차입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이 크다. 이러한 때에 부채에 대한 성경적 이해와 해결책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차입과 대출원리를 성경적으로 탐구하고 정리하는 데 있다. 서론에 이어 II장에서는 부채의 위험과 원인을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성경적 차입 및 대출원리를 정리하여 제시한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할 부채없는 삶, 더 나아가서는 대출자로서의 삶을 권고함으로써 본 논문을 마무리한다.

II. 부채의 위험과 원인

1. 부채의 위험

부채는 몇 가지의 위험을 안고 있다. 먼저 경제적 위험이 있다. 부채의 첫 번째 경제적 위험은 복리 계산이 차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3) 국민일보, 1996. 6. 19.

4) Larry Burkett, *Debt Free Living*, Moody Press, Chicago, 1989, p. 16.

5) 국민일보, 1996. 6. 14., 27면.

6) 국민일보, 1996. 5. 18 일자 12면; 문숙현,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국민일보사, 1996, p. 97.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부채의 두 번째 경제적 위험은 차입은 마치 함정과 같다는 것이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차입은 별다른 노력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차입한 돈을 갚는 데는 많은 힘이 든다. 부채의 세 번째 경제적 위험은 부채는 항상 미래를 담보로 한다는 점이다. 차입자의 미래 소득은 부채상환에 최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미래소득의 소비는 그만큼 제한을 받게 된다.

부채는 경제적 위험 이외에 영적 위험을 갖고 있다. 부채는 두 가지의 영적 위험을 갖고 있다. 먼저 차입은 항상 미래를 믿는 것이다. 둘째, 차입은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부정할 수 있다.

성경은 우리가 미래를 믿는 것을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서는 미래를 의존하는 것은 악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예수님도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하셨다. 어떤 목적으로 돈을 빌리는 것은 상환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차입은 불확실한 미래를 믿기 때문에 상환치 못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부채가 갖는 두 번째 영적 위험은 차입은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무엇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차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대출자를 두게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다.

2 부채의 원인

부채를 지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빚을 지게 되는 근본적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속히 부유해지고자 하는 마음과 의사결정이다. 둘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배우자의 충고를 무시하는 것이다.

먼저 급히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과 의사결정에는 세 가지의 구분되는 특성이 있다. 첫째, 차입으로 투자하는 경우다. 만일 우리가 현금으로만 투자를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결정에 상당히 신중을 기울일 것이다. 그러나 신용으로 투자하게 될 때는 더 위험한 투자를 하기가 쉽다. 왜냐하면 빌린 돈은 공동같이 생각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회사는 소비자들의 이러한 심리를 알고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신용카드회사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제조업체나 백화점도 소비자들의 이러한 심리를 이용하고 있다.

물론 타인자본을 이용해서 우리가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타인자본을 이용해 투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장기적으로는 투자한 돈을 모두 잃어버린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다. 즉 타인자본은 손익확대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차입금으로 투자한 사람들은 이후에 더 많은 차입을 하게 되고 경기가 나쁠 때에는 투자금액을 전부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잠언 21장 5절에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고 기록되어 있다.

급히 부자가 되고자 하는 심리의 두 번째 요소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거나 전혀 모르는 분야에 대해 투자하는 것이다.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에 투자하여 손실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

급히 부자가 되고자 하는 심리의 세 번째 요소는 조급한 의사결정이다. 사람들은 흔히 이와 같은 좋은 투자기회는 두 번 다시 없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우리를 유혹한다. 우리는 급히 부하고자 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잠언 28장 20절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빛에 빠지는 두 번째 큰 원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의 충고를 무

시하는 것이다. 이 성경적 원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남편이나 아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제일의 상담자인 배우자를 무시하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매우 위험하다. 부부는 서로서로 장점과 약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재정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서로 논의하여 합의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지혜롭다. 남편과 아내는 각각 다르지만 필수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서 하나의 협력단위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래리 버켓은 지배적인 아내는 혼자서 신용카드로 과도하게 의류나 가구를 구매함으로써 부채를 축적하고 있으며, 지배적인 남편은 독자적으로 배나 비행기를 구입하거나 투자함으로써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 것을 경험을 통해 관찰했다고 한다.⁷⁾

결국 부채를 지는 것은 두 가지의 성경적 원리를 어김으로서 발생한다. 첫째는 속히 부하고자 하는 태도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일의 상담자를 무시하는 태도에 있다.

III. 성경적 차입 및 대출원리

이 부분에서는 차입과 대출에 관련된 성경원리들을 찾아 정리하고자 한다. 차입과 대출은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이다. 일부 원리는 차입과 대출에 공통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먼저, 차입원리와 대출원리를 차례대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차입과 대출에 공통되는 원리를 찾아보기로 한다.

1. 차입원리

제1원리: 차입은 성경에 허용되어 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차입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금지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서 13장 8절에 근거하고 있

7) Larry Burkett, Ibid, p. 102.

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Harrison은 로마서 주석에서 로마서 13장 8절이 그리스도인의 차입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⁸⁾ 그는 빛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면 주님이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마 5:42)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구절은 영구히 빛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증거가 아니며, 남의 부채를 갚지 않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을 따름이다.

제2원리: 빛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

잠언22장 7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빛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이 구절에 의하면 차입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은 물론이고 채무자를 종으로도 삼을 수 있었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를 옥에 넣을 수도 있는 암묵적 권한이 주어졌다. 이와 같은 기본 규칙은 20세기까지도 미국에서 적용되었다.⁹⁾

제3원리: 부채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오늘날 부채가 어떻게 보여지고 있든지 관계없이 부채는 어떤 경제에서도

8) Larry Burkett, Ibid, p. 54.

9) Larry Burkett, Ibid, p. 54.

정상적이지 않으며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정상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부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신명기 28장 15, 44절을 차례로 읽고 귀기울여 보자.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미칠 것이니 …… 그는 네게 꾸일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차입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서 초래되는 하나님의 저주의 신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제4원리: 장기부채를 누적시키지 말라.

오늘날 차입기한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고 있는 최장 차입기한은 7년이다. 신명기 15장 1절과 2절을 읽어 보자.

“매 칠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꾸어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와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따라서 7년을 초과하는 부채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에게만 허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5원리: 부채는 반드시 갚으라.

오늘날 상황윤리가 널리 수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부채를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합리화하기가 쉽다. 특히 제품이나 서비스가 결함이 있거나 차

입자의 재정상태가 통제 불가능할 경우에는 더욱 그렇게 되기가 쉽다. 시편 37편 21절을 보자.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또 전도서 5장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시편 37편 21절이 가정하고 있는 것은 악인은 상환할 수 있으나 상환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부채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것은 원리라기보다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하나의 법이다.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곧 죄이다. 원리는 우리의 의사결정을 지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원리를 따라 살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원리를 무시하고 살게 되면 우리가 항상 위험의 상태에 있게 되어 사탄으로 하여금 우리를 언제든지 넘어지게 만들어 주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전도서 5장 5절은 그리스도인은 서원을 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서원을 하기 전에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돈을 차입할 때 우리는 갚겠다는 서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서 우리의 서원을 지켜야만 한다.

2. 대출원리

제1원리: 대출은 성경에 허용되어 있다.

차입이 금지된 것이 아닌 것처럼 대출도 성경에 허용되어 있다. 대출이 허용된 것은 구약의 여러 곳의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다.¹⁰⁾

10) 출 22:25; 레 25:25.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빌려주는 것을 오히려 장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누가복음 6장 3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 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자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제2원리: 대출은 정상적인 것이다.

차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살 때 얻게 되는 일종의 저주 현상이다. 그러나 대출은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순종했을 때 얻게 되는 축복의 신호 중의 하나이다.

신명기 28장 1절과 12절을 차례로 읽고 귀기울여 보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찌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 두 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 때 많은 민족에게 대출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따라서 말씀에 순종해서 살 때 대출은 정상적인 활동인 것이다.

제3원리: 가난한 형제에게는 대출이자를 받지 말라.

세상의 대출원리는 모든 차입자에게 시장금리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출원리는 그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대출할 경우에는 이자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을 보자.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채주 같이 하지 말며 변리를 받지 말 것이며”

느헤미야는 아닥사스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한 형제에게서 이자 받는 것을 꾸짖고 이자받지 말 것을 권면했을 때 백성들이 그의 말에 순종하였다(느 5:1~13).

제4원리: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을 대출하지 말라.¹¹⁾

돈을 빌려주는 것은 쉽다. 그러나 빌려준 돈을 받기는 어렵다. 시편 37편 21절에 의하면 악인은 꾸고 갚지 않으려고 한다.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데는 금전적 비용 뿐만 아니라 비금전적 비용도 발생한다. 따라서 우리는 대출금을 받지 않아도 가족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일반 기업에서는 이것을 위해서 대손충당금을 계산해 두고 있다.

제5원리: 채무자가 상환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판단되면 대출금을 탕감해 주라.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때는 직접 그를 만나서 사정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직접 만나 대화함으로써 대부분의 오해를 풀 수 있다. 채무자의 상황이 상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그 부채를 탕감해 주어야 한다.

신명기 15장에서는 매 칠 년 끝에 면제하도록 규례로 정해져 있다(신 15:1~2). 예수님께서도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에 빚의 탕감의 원리로 설

11) Larry Burkett, *Business By The Book*, Thomas Nelson Publishers, 1990, pp. 167~168.

명하셨다(마 18:21~35).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탕감)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의 죄(빚)도 용서(탕감)해 주어야 한다.

3. 공통원리

제1원리: 타인을 위하여 담보하지 말며 보증하지 말라.

잠언에는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보증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잠 6:1~5). 잠언의 다른 많은 곳에서도 보증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잠 11:15)

솔로몬은 많은 백성들이 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를 보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잠언 22장 26~2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네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제2원리: 이자는 차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이스라엘은 가난한 동족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말도록 되어 있다(출 22:25; 레 25:36~37). 이것은 가난한 자가 일용할 양식을 사기 위해 돈을 빌릴 때에 적용된다. 그러나 외국인이나 부자에게 사업목적으로 돈을 빌려줄 때는 시장에서 결정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IV. 빚없는 삶과 대출자로서의 삶

최근 우리 경제주체들의 차입이 증가추세에 있다.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부채의 위험과 원인을 살펴보고 성경적 차입 및 대출원리를 정리하였다.

차입과 대출이 성경에 허용되어 있다 할지라도 차입하는 것은 억제되고 있고 대출은 장려되고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차입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Ron Blue는 차입을 할 때에 4가지의 규칙을 지킬 것을 추천하고 있다.¹²⁾

첫째, 경제적 수익이 경제적 비용보다 커야 한다.

둘째, 확실한 상환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부가 일치된 의견을 가져야 한다.

또 이미 빚진 자는 빚을 갚기 위해 힘써야 한다. 왜냐하면 빚진 자는 미래소득의 소비에 그만큼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빚진 자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빚없는 삶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엘리사의 어느 생도의 아내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왕하 4:1~7).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대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왕하 4:7).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경우에는 차입자가 아니라 대출자가 될 것이라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다. 대출을 누구에게 할 것인가? 그 해답을 “청지기

12) Ron Blue, *The Debt Squeeze*, Publishing, Colorado Springs, 1989, pp. 75-87.

비유”(눅 16:1~13)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눅 16:9). 그리하면 재물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먼저 우리가 사귀어야 할 친구는 하나님이다. 소득의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말 3:7). 그 다음 우리가 사귀어야 할 친구는 가족이다. 우리가 우리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것이다(딤후 5:8). 가족의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할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필요를 위해서 소득의 일부를 저축해야 한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은 지혜로운 활동이라고 말하고 있다(잠 6:6~7; 21:20).

가족의 필요를 충족하고도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때에도 우리의 자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도와주어야 한다. 먼저 믿음의 가정을 돕고, 그 후에는 비그리스도인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펼쳐야 한다(갈 6:10).

본 논문은 성경적 차입 및 대출원리를 최초로 정리하였다는 데 그 가치가 있다. 이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가게, 기업, 그리고 정부의 각 경제주체별로 빛에 관하여 더 깊이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그랜드 제자성경, 도서출판 영광, 1989
- Blue, Ron, *The Debt Squeeze*, Colorado Springs Publishing, 1989.
- , *Master Your Money*, Thomas Nelson Publishers, Nashville, 1991.
- Burkett, Larry, *Debt Free Living*, Moody Press, Chicago, 1989.
- , *Business By The Book*, Thomas Nelson Publishers, Nashville, 1990.
- Harrison, Everett F.,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Volume 10,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6.

Park, Jeong-Yun, Tindle D., Greene, G. R., and Shelor, R., "Differences in Capital Structure: Strategies in Christian-managed Firms Compared to Secular Firms," Working Paper, 1994.



■ 박정윤 ■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 석사과정 수료, 아리조나 주립대학 대학원(경영학 석사), 캔터키대학 대학원에서 재무관리학 전공(경영학 박사), 미국 르터너 대학에 교환교수 역임, 현 영남대학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역서로 「하나님 돈을 어떻게 쓸까요」(공동번역, CUP), 저서로 「네 친숙에게 고하라」(천금출판사), 논문 다수 논문.